

질병부담측정			번호: III - E - 5		
제 목	국문	질병부담측정을 위한 국가보건통계정보체계의 개발방안			
	영문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Statistics System for Burden of Disease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무식 <sup>1)</sup> , 권영훈 <sup>2)</sup> , 윤석준 <sup>3)</sup> , 신영수 <sup>2)</sup>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1)</sup>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sup>2)</sup>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3)</sup>			
	영문	Moo-sik Lee <sup>1)</sup> , Young Hoon Kwon <sup>2)</sup> , Seok-Jun Yoon <sup>3)</sup> , Youngsoo Shin <sup>2)</sup>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up>1)</sup> ,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up>2)</sup> ,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up>3)</sup>			
분 야	보건관리 질병부담측정	발 표 자	권영훈 전 공 의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0월				
<p><b>연구목적</b>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에 질병부담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단위의 보건통계생성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보건 및 질병통계 산출 방법과 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p> <p><b>연구방법</b> 기존 문헌 검토 및 전문가 회의, 정책 담당자 면담, 설문조사, 현지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p> <p><b>연구결과</b> WHO에서 시작한 질병부담연구는 자국의 모든 질병들에 대한 부담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국가 질병부담(National Burden of Disease) 연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70여가지 질병에 대한 부담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가질병부담연구를 통해서 개별 질환들에 대한 질병 부담이 산출되면 이들은 자국의 보건학적 기본지표로서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내에서 자원배분의 우선 순위 선정에까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p> <p>국가질병부담연구를 통한 개별 질환들의 질병부담이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나라안의 모든 질병들에 대한 유병률, 발생률, 치명률, PAR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역학자료의 생성 및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p> <p>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질병통계가 국가 단위에서는 충분히 생성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가적인 모니터링,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의학연구와 진료, 보건의료정책의 개발에서도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질병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정보의 사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통계정보화의 운영주체가 불명확하고 전략이 부재하며 정보의 공유 및 호환이 미흡한 점, 보건통계의 생성과 제공, 활용이 불충분하며,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점, 생성 및 관리체계가 불완전하고</p>					

조직 및 인력, 예산이 매우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질병부담연구를 위한 국가보건통계정보 체계의 개발방안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법/제도적,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결과는 연구 중에 있다.

고찰

연구 중임.